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결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outcomes of dual-career wives

인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전 영 자

Dept. of Home Management, Inje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Youngja Jeon

〈목 차〉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role conflict, coping strategy,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dual-career wives.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the theoretical model of this study was built on the basis of relevant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Especially, it was influenced by the ABCX model of family stress proposed by Hill.

Data were collected from 229 dual-career wives such as professors, doctors, lawyers, teachers, pharmacists, and nur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Role conflict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self-esteem and positively correlated to psychological distress.
- 2) In terms of a main effect, coping strategy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self-esteem and negatively correlated to psychological distress.
- 3) In terms of interaction effect, coping strategy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against the negative impacts of role conflict on self-esteem and it, on the whole,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against the positive impacts of role conflict of psychological distress.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점차 많은 여성들이 직업세계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산업화 초기에는 미혼여성이 취업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 와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통계연감에 의하면 1993년의 여성취업자는 7,710,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전문기술직이 9.5%, 행정관리직이 0.2%, 사무직이 15.5%, 판매서비스직이 37.5%, 농림어업직이 16.9%, 생산직이 20.3%로서 전문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전체적 비율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1994). 그러나 이를 1970년대와 비교해 보면 4배 이상 증가된 것이어서 전문직 취업여성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적인 증가현상으로 인해 점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직 취업주부의 경우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중다역할 수행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역할의 성별 분업의식으로 인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을 고수하는 한 과중한 이중역할 수행을 피할 수 없으며 양쪽으로 실패감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전적으로 직장에 몰두하는 사람들에 비해 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스트레스와 실패감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서 역시 부족감을 느끼게 된다(조혜정, 1989).

Hall(1972)은 취업주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특정 역할내에서 부딪히는 문제보다는 중다역할에서 비롯되는 역할갈등이며 이러한 역할갈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으며 Pearlin과 Schooler(1978)의 스트레스 모델에서는 역할긴장을 스트레스 과정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문직 취업주부가 일상생활에서 수행해야 하는 중다역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직업역할과 가족역할로서 많은 연구

들이 직업-가족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다루고 있다(Crossman, 1984; Greenhaus, 1988; Kline & Cowan, 1988; Schwartzberg & Dytell, 1988).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유기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에 대한 추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개인이 이를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손상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된다.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주부의 중다역할에 따른 스트레스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Baruch, Biener & Barnett, 1987; Voydanoff, 1987), 또한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도 많은 연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구혜령, 1991; Bird & Ford, 1985; Elman & Gilbert, 1986).

여성취업의 당위성이 아직 제대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배려는 더욱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업여성들이 겪는 고충은 현재로서는 여성자신의 남다른 노력과 그 가족의 양해와 협조 수준에서 해결이 모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조정은 특수한 상황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므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조혜정, 1989). 이와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볼때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주부 자신의 정신건강에 관련되며 나아가서 가족 전체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현 시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취업함으로써 수행해야 하는 부부역할, 직업역할, 부모역할이라는 중다역할 수행상의 갈등과 이러한 역할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처방안들의 사용이 이들 취업주부의 심리적 결과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심리적디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적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과 심리적다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스트레스원-대처-결과)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하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에 따라 각 연구 변수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스트레스의 개념 및 스트레스 모델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정의는 관점에 따라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Lazarus(1984)는 스트레스의 개념을 자극모델, 반응모델, 상호작용모델의 세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긴장을 유발시키는 환경적 자극이나 내적 요인 즉, 사람과 환경간에 평형을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특성을 가진 자극을 의미하며 둘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환경적 요구 및 내적 요구에 개인, 사회, 조직체계내의 적응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의미한다고 했다. 셋째, 상호관계로서의 스트레스는 위의 두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시킨 개념으로서 개인의 인지현상과 정신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전개시켰다. 이는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심리적과정에 기본 관점을 둔 것으로 개인의 인지와 정서적인 특징을 환경내의 자극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간의 중요한 매개변수로서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스트레스는 하나의 단일 차원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원인 또는 자극으로서의 개념, 상호작용과정 또는 매개체로서의 개념, 그리고 반응 또는 결과로서의 개념 등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 연구가 정신의학에서 시작되어 심리학이나 행동과학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스트레스 개념에 유기체-환경 상호작용 모델이 도입되면서 사회학이나 교육학, 경영학 및 가족학 분야로 그 연구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족사회학이나 가족학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족스트레스 연구

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른 가족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보는 관점을 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론모형은 Hill의 ABCX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모델은 4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데 A요소는 스트레스원, B요소는 가족의 위기 대처자원, C요소는 사건에 대한 가족의 주관적 지각, 그리고 X요소는 위기로서 설명한다. 즉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A), 가족들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의 여부 (B), 이 사건을 가족이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는가에 따라서 (C), 가족의 위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위기로 몰고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모델에서 중요한 개념은 A,B,C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X요소의 발생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2. 역할갈등(스트레스원)

가족스트레스 연구는 사회적 관심과 흥미를 끌게 된 사건과 어려움 등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문제들의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을 밟아왔다(McCubbin et al., 1980). 그러한 사회적 관심분야 중의 하나가 기혼여성이 직장생활을 병행함으로써 야기되는 역할갈등에 관한 것이다 (Rapoport & Rapoport, 1978; Skinner, 1983). 특히 자녀가 있는 취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직업인, 부모라는 여러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역할들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중다역할 수행상의 역할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할갈등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며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의 갈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유영주, 1984).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의 개념을 부부역할과 직업역할, 그리고 부모역할이라는 여러가지 역할들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중다역할요구가 상호 병행될 수 없거나 역할기대와 수행 간의 차이로 인해 느끼게 되는 갈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기혼여성이 가정역할 뿐 아니라 가정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종종 경쟁적인 역할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Beutell & Greenhaus, 1983). 더우기 전문직 취업주부는 직업물두의 특성과 가정생활의 요구때문에 일반 취업주부보다 역할긴장과 역할갈등이 더 할 것이다. 이에 대해 Hall 과 Hall (1979)은 직업에 몰두한 부부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라고 했는데 특히 그들이 가정생활을 가치롭게 여길 경우 더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Greenhaus(1988)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직업에 몰두했을 경우 역할갈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상대방의 직업적 요구를 상호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며 가족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을 완화하고 갈등수준을 감소시킨 결과라 했다.

한편 Pleck (1977)은 직업역할과 가족역할간 경계침투성(permeability of boundaries)에 대해 남녀의 차이에 관해 논의했는데, 사회적 규범이 여성에게는 가족역할을 우선 수행하도록 하고 반면 남성에게는 직업역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했다. 예를들면 부부가 둘다 취업한 경우라도 자녀가 아프면 부인이 집에 남아 자녀를 돌볼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직이 그 구조상 가족역할에 대한 시간적 배려는 별로 없이 과도한 작업시간을 요구하므로(Hertz, 1986) 가사를 전적으로 맡을 사람이 없으면 직업과 가족의 서로 상치되는 요구때문에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3. 대처방안

대처란 가족체계의 조직화와 통합을 촉진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가족체계내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처행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가족을 보호하는 가족체계자원(예를 들면, 결속력, 적응, 조직력)을 유지 강화시킨다. 셋째, 스트레스 사건과 그에 따른 곤경을 감소 또는 제거한다. 넷째,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환경의 변화

를 도모한다 (Olson et al., 1983).

이와같은 특성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가족의 대처전략을 내적 전략과 외적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즉 내적 전략에는 스트레서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정의하는 재구조화 전략과 스트레서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 수동적 평가전략이 있고, 외적 전략에는 확대가족원,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체계 획득 전략, 정신적 지원 찾기 전략,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가족원을 동원하는 전략등이 포함되어 있다.

취업주부 가정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가족체계내에서의 대처행동과 가족외부지원의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kinner, 1983).

가족체계내에서의 대처행동으로서 Poloma(1972)는 전문직 취업주부가 사용하는 4가지 긴장관리 태크닉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취입한 것이 안한 것보다 더욱 유의하다고 정의를 내림으로서 갈등을 감소시킨다. 둘째, 자신의 역할들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둔다. 가족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족역할과 직업역할 간에 갈등이 생기면 가족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셋째,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가능한 한 구체화 해 둔다. 직업과 관련된 문제는 집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분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넷째, 직업열망과 다른 역할 요구들을 절충함으로써 긴장을 관리한다.

취업부부의 스트레스와 대처간의 관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대처 노력이 중다스트레서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이다. Double ABCX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 스트레스에 특정 대처방안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의 모든 부분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노력이 포함되며 완전한 대처방안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McCubbin & Patterson, 1983).

4.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인 ABCX모델에서 X요인에 해당되는 스트레스 과정의 심리적 결과변수

(outcome variable)로서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선택하였다. 이는 인간의 정서적 평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긍정적인 부분은 자아존중감으로, 부정적 부분은 심리적디스트레스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혼여성들의 경우 대체로 결혼함으로써 남편과 자녀에게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그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취약해지고 점차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결국 심리적디스트레스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여 인간의 정서적 평형상태를 깨뜨리고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Pearlin & Schooler, 1978) 여성들의 불안정한 자아정체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취업으로, 많은 연구들이 기혼여성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을 했던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Ross, Mirowsky & Huber, 1983; Sekaran, 1983).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문제거리나 근심등을 겪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나 긴장을 뜻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Quick 과 Quick(1984)은 스트레스 자체는 중간적 용어로서 그 자체로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며 똑같은 스트레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데 비해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다. 스트레스 과정의 산출물로서 긍정적 측면의 유스트레스(eustress)와 부정적 측면의 디스트레스(distress)가 있다고 하여 디스트레스를 스트레스 과정의 부정적 측면의 산출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중다역할 수행이 취업주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 연구들에서 중다역할 수행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Sieber, 1974; Marks, 1977; Thoits, 1983) 이에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의 상반된 가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결핍가설(scarcity hypothesis)에 의하면 인간은 제한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회조직은 개개인의 완

전한 충성을 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역할의 수가 많아질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고갈되어 역할갈등과 역할과중이 되고 이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는 견해이다 (Marks, 1977).

반면 高揚가설(enhancement hypothesis)의 입장은 중다역할이 심리적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견해로서 (Gove & Tudor, 1973) 중다역할에 따른 의무보다는 권리를 강조한 것이다(Sieber, 1974; Marks, 1977). 즉 여러가지 역할들은 취업주부에게 신선한 자극과 권위, 안정감 등을 주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여러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라도 가족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연구들은 가정하고 있으며 (Barnett & Baruch, 1987), 가족역할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Stewart & Salt, 1981; Dytell & Schwarzberg, 1986). 여러 연구들에서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심리적 건강이 높게 나왔지만 (Thoits, 1984; Ensel, 1986), 가정내에서의 경험의 질이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Thoits (1984)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우울 점수가 낮게 나왔고, Baruch 와 Barnett (1986) 그리고 Kessler 와 McCrae (1981)의 연구결과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심리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여성의 취업은 그 자체로서도 긍정적인 심리적 건강의 원천이 되며 다른 역할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완충효과도 있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Epstein, 1983).

그러나 직업역할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들이 있지만 중다역할 연구들은 직업과 가족역할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직업역할을 역할과중과 역할갈등을 일으키는 촉매제로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Barnett & Baruch, 1985).

이와같이 취업주부의 중다역할이 심리적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Kline 과 Cowan (198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개변수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

했다. 중다역할과 심리적건강 간의 관계 연구에서 Kline 과 Cowan(1988)은 취업이유, 부부관계, 성별, 가족생활주기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그 중재효과를 고찰하고 있다.

대처방안의 효율성은 그것이 취업주부의 생활로부터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감소시키는가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대처가 어려움을 잘 막아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야기시키지 않았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즉 대처방안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역할갈등이나 생활긴장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가에 달려있다 (Pearlin & Schooler, 1978).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이론적 모형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ABCX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ABCX 모델에서 A요인인 스트레스원은 전문직 취업주부 가족의 생활패턴에 내재되어 있는 역할갈등들로서 부부역할갈등, 직업역할갈등, 부모역할갈등의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B요인인 가족의 대처자원과 C요인인 스트레스원에 대한 지각 및 평가를 합하여 대처방안으로 보았다. X요인인 위기상황은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대처방안등을 사용하는 복합적인 과정에서, 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결과로서 인간의 정서적 상태인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구성하였다.

가족스트레스의 이론적 모델과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선택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위의 연구모형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세 가지 기본 가설들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문제 1: 역할갈등은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역할갈등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역할갈등은 심리적디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대처방안은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심리적디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연구문제 3: 대처방안은 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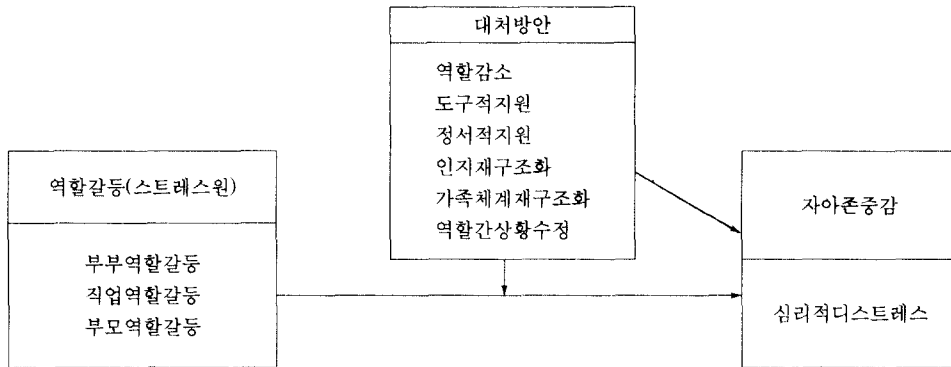
가설 3-1: 대처방안은 역할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정도를 완화시킬 것이다.

가설 3-2: 대처방안은 역할갈등이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정적 영향의 정도를 완화시킬 것이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문직 취업주부로 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광범위한 전문직은 교수, 법관, 의사 등의 남성주도적(male-dominated) 전문직과 교사, 간호사, 약사, 사회사업가 등의 여성주도적(female-oriented) 전문직으로 나누어진다(Theodore, 1971). 본 연구에서는 Theodore의 분류기준에 따라 교수, 법관, 의사, 교사, 약사, 간호사의 6개 직업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전문직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질문지로서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를 통해 소개를 받아 접근 가능한 대상자들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임의표집방법을 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1991년 12월 15일부터 1992년 1월 17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49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에서 내용의 기



〈그림 1〉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제가 부실한 것을 제외한 229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4. 척도의 구성

스트레스원 척도로서는 전문직 취업부부의 역할갈등을 측정 한 Bird (198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역할갈등 척도는 부부역할갈등, 직업역할갈등, 부모역할갈등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총 2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했는데 부부역할갈등척도는 α 값이 .80이 나왔고, 직업역할갈등척도는 α 값이 .74였으며 부모역할갈등척도는 α 값이 .80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안 척도는 Skinner와 McCubbin의 취업부부 대처방안척도(DECS: Dual Employed Coping Scales)를 사용하였다. DECS는 총 5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 중에서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 문항들을 제외시키고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총 41개 문항만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문항분석을 통해 상관의 정도가 낮은 문항들을 제외하고 34개 문항만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 방법(Principle Component)에 의했으며 varimax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시켰다. 회전결과 나온 요인들을 역

할감소방안, 도구적지원방안, 정서적지원방안, 인지재구조화방안, 가족체계재구조화방안, 역할간상황수정방안으로 나누고,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구한 결과 역할감소방안은 α 값이 .75, 도구적지원방안은 α 값이 .81, 정서적지원방안은 α 값이 .72, 인지재구조화방안은 α 값이 .83, 가족체계재구조화방안은 α 값이 .83, 그리고 역할간상황수정방안은 α 값이 .77로 나왔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6개의 요인들을 대처방안의 하위영역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재구조화방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재해석하고 합리화하는 대처방안이다. 가족체계재구조화방안이란 전통적인 가족체계의 특이인 경직된 성별 분업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가정내의 역할을 각 가족구성원들에게 분담하는 방안을 말한다. 한편 역할간상황수정방안은 직업역할이 가족역할에까지 연장되거나 또는 가족역할이 직업역할에 연장되어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간의 상황을 조정하는 대처방안이다. 다음으로 도구적지원방안은 사회적지원방안 중 주로 물적지원방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가사노동의 시간과 에너지 절약을 가족외부로부터 구하는 방안을 말한다. 역할감소방안이란 가사노동에 관한 표준을 낮추거나 참여활동들을 가능한 줄이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지원방안은 확대가족원이나 친구들에

게 정서적으로 지지를 얻는다거나 자신들의 생활유형을 정당화 할 다른 전문직부부와 교제함으로써 사회적지지체계를 확대시키는 대처방안이다.

자아존중감은 Pearlin과 Schooler (1978)의 척도를 사용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척도인 Rosenberg Scale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디스트레스는 Derogatis, Rickels & Rock의 SCL-90-R (Symptom Checklist- 90- Revision) 중에서 우울 척도 10문항과 불안 척도 10문항을 추출하여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를 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척도의 α 계수가 .82, 심리적디스트레스척도의 α 계수가 .90으로 나왔다.

5.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가 사용되었으며 역할갈등(스트레스원)척도와 대처방안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척도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간의 내적일치도를 보는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했다.

그리고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과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했으며 이러한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

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역할갈등을 부부역할갈등, 직업역할갈등, 부모역할갈등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의 역할갈등의 정도를 구했다. 리커트형 5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표 1〉 전문직 취업주부의 영역별 역할갈등의 정도

(N = 229)

	평 균	표준편차
부부역할갈등	2.423	0.663
직업역할갈등	2.665	0.625
부모역할갈등	2.906	0.696

부부역할갈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할갈등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전문직 취업주부들이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부부역할 수행상의 갈등은 다른 역할 수행상의 갈등보다는 비교적 낮은 것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업-가족갈등 중에서도 부모역할갈등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한 Schwartzberg와 Dytell(1988)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2) 전문직 취업주부의 대처방안

본 연구에서는 McCubbin 과 Skinner(1981)가 취업부부 가족을 위해 만든 대처방안 척도 (DECS: Dual Employed Coping Scale)를 사용했는데, 리커트형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안의 사용정도가 높은 것이다.

〈표 2〉 전문직 취업주부의 영역별 대처방안 사용정도

(N = 229)

대처방안	평 균	표준편차
역할감소	3.447	0.622
도구적지원	3.277	0.718
정서적지원	3.343	0.698
인지재구조화	3.657	0.550
가족체계재구조화	3.283	0.711
역할간상황수정	2.798	0.597

대처방안 사용정도는 척도의 중간점인 3점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인지재구조화 방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재해석하고 합리화하는 대처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 방안의 사용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역할이 가족역할에까지 연장되거나 또는 가족역할이 직업역할

에 연장되어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간 상충수정방안의 사용정도는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 방안의 사용정도가 현격히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직장풍토나 직장인들의 의식이 여전히 역할분화를 이루지 못한데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3) 전문직 취업주부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자아존중감과 심리적디스트레스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리커트형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그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표 3〉 전문직 취업주부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디스트레스

(N = 229)		
	평 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3.598	0.592
심리적디스트레스	2.180	0.706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평균값이 3.598로써 중간값인 3점보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다역할 요구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은 취업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Haw (1982)와 Pistrang (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Ferree(1976)의 연구에서도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자아존중감도 높고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불안 척도를 합하여 구한 심리적디스트레스의 정도는 평균값이 2.180으로서 낮게 나왔다. 이러한 점수는 조희선(1991)의 부부가족의 우울 점수인 2.75점, 그리고 불안점수 2.51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문직 취업주부의 심리적디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우울증의 정도가 덜 하다고 한 Thoits (1984)의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며, 또한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심리적건강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Baruch & Barnett(1986), 그리고 Kessler & McCrae(198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의 대상인 전문직 취업주부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편이며 심리적디스트레스의 정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설검증

1) 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역할갈등은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문제 1로부터 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역할갈등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역할갈등, 그리고 세가지 역할갈등영역들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표 4〉 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N = 212)

변 수	자아존중감
부부역할갈등	- 0.271***
직업역할갈등	- 0.252***
부모역할갈등	- 0.251***
전체역할갈등	- 0.318***

*** p < 0.001

전체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r = -0.318$ 로서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부부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직업역할갈등이나 부모역할갈등이 높을 때에도 역시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할갈등들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식은 설명력이 높은 변수별로 투입되는 단계별 투입방식 (stepwise)을 택하였다.

역할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표 5〉 역할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N = 229)

변 수	B	β	T	Sig T	R ²
부부역할갈등	-.169	-.189	-2.587	.01	.076
부모역할갈등	-.145	-.170	-2.239	.02	.097
회귀상수	4.431				
R ²	.097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역할갈등($\beta = -.189$)과 부모역할갈등($\beta = -.170$)이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이 두 변수에 의해 9.7%가 설명되고 있었다.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직업역할갈등이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계($r = -0.25, p < 0.00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귀분석에서 제외된 것은 직업역할갈등이 부부역할갈등이나 부모역할갈등과의 공분산으로 인하여 이 변수가 투입되어도 종속변수의 설명력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회귀식에서 탈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분석에 의하여 가설 1-1은 긍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중다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조사한 Crossman (1984)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가설 1-2: 역할갈등은 심리적디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역할갈등, 그리고 세 가지 역할갈등영역들과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표 6〉 역할갈등과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N = 212)

변 수	심리적디스트레스
부부역할갈등	0.375***
직업역할갈등	0.338***
부모역할갈등	0.357***
전체역할갈등	0.442***

*** p < 0.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직 취업주부의

전체 역할갈등 및 영역별 역할갈등과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갈등이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역할갈등이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N = 229)

변 수	B	β	T	Sig T	R ²
부부역할갈등	.259	.243	3.475	0.001	.132
부모역할갈등	.244	.241	3.439	0.001	.176
회귀상수	.884				
R ²	.176				

〈표 7〉을 보면 심리적디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독립변수로 부부역할갈등($\beta = .243$)과 부모역할갈등($\beta = .241$)이 나타났으며 이 두 변수에 의해 취업주부의 심리적디스트레스는 17.6%가 설명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부역할갈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적디스트레스의 정도는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할갈등이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직업역할갈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독립변수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외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다른 역할갈등영역과의 공분산으로 인해 탈락되었다고 보겠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역할갈등은 심리적디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2는 긍정되었다고 보겠다.

2) 대처방안과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대처방안은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연구문제 2로부터 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대처방안전체의 평균값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6개 대

처방안영역들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구했다.

〈표 8〉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N = 212)

변 수	자아존중감
역할감소	-0.078
도구적지원	0.118*
정서적지원	0.192**
인지재구조화	0.389***
가족체계재구조화	0.255***
역할간상황수정	0.023
대처방안전체평균	0.265***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9〉 대처방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N = 229)

변 수	B	β	T	Sig T	R ²
인지재구조화방안	.378	.347	5.379	.000	.151
가족체계재구조화방안	.143	.170	2.628	.009	.178
회귀상수	1.754				
R ²	.178				

대처방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지재구조화 방안($\beta=.347$)과 가족체계재구조화 방안($\beta=.170$)이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수에 의해 취업주부의 자아존중감은 17.8%가 설명되고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 의해 대처방안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역할감소 방안과 역할간상황수정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대처방안들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남으로써 정서적지원을 받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긍정적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 Gore (1978)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역할감소 방안, 도구적지원 방안, 인지재구조화 방안, 역할간상황수정 방안 등의 개인적 대처방안이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Crossman(1984)의 연구결과와도 대체로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한 가설 2-1은 대체로 긍정되었다고 보겠다.

가설 2-2: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심리적디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표 10〉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N = 212)

변 수	심리적디스트레스
역할감소	0.118*
도구적지원	-0.093
정서적지원	-0.179**
인지재구조화	-0.293***
가족체계재구조화	-0.315***
역할간상황수정	0.073
대처방안전체평균	-0.20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대처방안과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에는 상관계수 -0.201(p<0.01)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역할감소 방안과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지원 방안, 인지재구조화 방안, 가족체계재구조화 방안과 심리적디스트레스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안이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표 11〉 대처방안이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N = 229)

변 수	B	β	T	Sig T	R ²
가족체계재구조화방안	-.310	-.310	-4.646	.000	.098
인지재구조화방안	-.314	-.243	-3.759	.000	.147
역할간상황수정방안	.235	.197	3.015	.003	.183
회귀상수	3.687				
R ²	.183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대처방안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간상황수정방안은 다른 대처방안들과는 달리 이 방안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디스트레스의 정도도 높아지게 되어 역기능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역할감소 방안의 사용정도와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전문직 취업주부들의 경우 역할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사용할수록 심리적디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서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이 강한 대다수의 전문직 취업여성들이 갖고 있는 수퍼우먼 신드롬 증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Heckman et al.(1977)이나 Poloma et al.(1982), Yohalem(1979)의 연구들에서 취업주부들이 역할감소 방안이나 역할간 상황수정 방안을 사용함으로써 심리적디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서적지원 방안과 심리적디스트레스 증상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Laster(1981)의 연구나 전문직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인지재구조화 방안과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분석한 Guelzow(1989), Elman과 Gilbert(1984)의 연구결과들도 본 연구와 같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처방안의 사용정도와 심리적디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한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대처방안이 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검증

“대처방안은 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문제 3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대처방안은 역할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의 정도를 완화시킬 것이다.

가설 3-2: 대처방안은 역할갈등이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의 정도를 완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은 대처방안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처방안을 사용함으로써 역할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의 정도와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의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대처방안을 사용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의 주효과(main effect)와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해 세가지 역할갈등과 6개 대처방안, 그리고 역할갈등과 대처방안의 상호작용 변수들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 Y에 대해 독립변수 X_1 과 X_2 가 상호작용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한 독립변수 X_1 이 Y에 대해서 가지는 효과의 질과 양이 다른 독립변수 X_2 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X_2 가 Y에 대한 X_1 의 효과를 증개(moderate)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X_1 과 X_2 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변인 X_3 는 X_1 과 X_2 를 곱하므로써 구해진다(한국심리학회,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과 대처방안의 상호작용효과를 구하기 위해 세가지 역할갈등 변수들과 6개의 대처방안 영역변수들을 곱하여 18개의 상호작용변수를 만들어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단계별 투입방식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서 인지재구조화방안($\beta = .348$)과 부부역할갈등($\beta = -.200$)만이 나타났을 뿐이며 상호작용변수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가설 3-1은 부정되었다고 보겠다.

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주부의 심리적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들을 찾아보기 위해 역할갈등과 대처방안, 그리고 역할갈등과 대처방안의 상호작용변수들

〈표 12〉 취업주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N = 229)

변 수	B	β	T	Sig T	R ²
인지재구조화방안	.379	.348	5.479	.000	.152
부부역할갈등	-.183	-.200	-3.148	.002	.190
회귀상수	2.658				
R ²	.190				

〈표 13〉 취업주부의 심리적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N = 229)

변 수	B	β	T	Sig T	R ²
부부역할갈등	.570	.526	4.250	.000	.140
부부역할갈등 x	-.109	-.395	-3.428	.001	.192
인지재구조화방안 직업역할갈등 x	.075	.244	3.579	.000	.225
역할간상황수정방안 가족체계재구조화방안	-.218	-.219	-3.366	.001	.266
회귀상수	1.901				
R ²	.266				

을 투입한 결과 부부역할갈등이 $\beta=.526$ 으로서 가장 설명력이 높게 나왔고, 가족체계재구조화방안($\beta=-.219$)이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역할갈등과 인지재구조화방안의 상호작용변수($\beta=-.395$)와 직업역할갈등과 역할간상황수정방안의 상호작용변수($\beta=.244$)가 각각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심리적디스트레스의 정도는 높아지고 가족체계재구조화방안을 많이 사용할수록 심리적디스트레스의 정도는 낮아지게 된다. 한편 부부역할갈등이 있을 때 인지재구조화방안을 사용함으로써 두 변수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디스트레스의 정도를 낮추고 반대로 직업역할갈등이 있을 때 역할간상황수정방안을 사용하면 이 두 변수가 상호작용하여 취업주부의 심리적디스트레스의 정

도를 높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부관계 영역에서의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문제상황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인지재구조화방안을 사용하게 되면 취업주부의 심리적디스트레스는 낮아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역할갈등과 역할간상황수정방안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디스트레스의 정도를 더 높여주는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겠다.

이상에서 대처방안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2개의 가설을 검토한 결과 취업주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변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변수로 인지재구조화방안과 부부역할갈등 간의 상호작용변수와 역할간상황수정방안과 직업역할갈등 간의 상호작용변수의 두가지가 나타났다. 이와같이 대처방안이 종속변수들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전면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 가설 3-1, 3-2는 대체로 부정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Stewart(1988)의 연구에서도 대처방안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주효과(main effect)는 검증되었으나 대처방안과 역할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회피방안에서만 나타남으로써 대처방안의 상호작용효과가 대체로 부정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취업주부의 중다역할 수행으로 인한 역할갈등이 궁극적인 인간의 심리적 평형상태인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업주부와 그 가족이 채택하는 나름대로의 생활유형인 대처방안이 취업주부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역할갈등(스트레스원)-대처-심리적결과라는 스트레스과정의 패러다임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특히 최근에 와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역할갈등과 스

트레스과정의 심리적결과로서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가지고 스트레스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모형을 만들어 이를 검증하였다.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원인 역할갈등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심리적디스트레스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처방안의 사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그리고 대처방안과 심리적디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써 역할갈등과 대처방안이 심리적결과로서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효과모형은 검증이 되었다. 그러나 대처방안이 역할갈등과 상호작용하여 심리적결과로서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호작용모형은 상호작용 효과가 전면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해 본 스트레스 연구에 있어서의 상호작용모형에 관한 검증은 최근의 연구경향으로서 여러 선행연구들이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나 이론적 모델이 실증적 연구들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이 되지 못함으로써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정신질환의 분제가 있는 집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상적 취업주부들이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정상인들에게 있어서도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병리적 증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모형은 일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스트레스 질환자에 대한 가족치료 분야에서 일부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전문직 취업주부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며, 스트레스원으로 이용된 역할갈등척도가 전문직 취업주부가 가질 수 있는 역할갈등의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지 못했고,

또한 대처방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역할갈등과 대처방안을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디스트레스라는 정신건강과 관련시킨 연구는 국내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시도해 본 것으로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모형은 가족치료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1) 구혜령. (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유영주. (1984)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3) 조혜정. (1989) 가족관계: 여성의 취업여부와 계층에 따른 비교적 고찰.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79-231.
- 4) 조희선. (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통계청. (1994) 한국통계연보.
- 6) 한국심리학회. (1990) 중다변인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하계연수회자료.
- 7) Barnett, R.C. & Baruch, G.K. (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35-145.
- 8) Barnett, R.C. & Baruch, G.K. (1987) Social roles, gend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R.C. Barnett, L. Biener and G.K. Baruch (eds.) *Gender and Stress*. New York: Free Press.
- 9) Baruch, G.K. & Barnett, R.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78-585.
- 10) Baruch, G.K., Biener, L. & Barnett, R.C. (1987) Women and gender in research on work and

- family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2, 130-136.
- 11) Beutell, N.J. & Greenhaus, J.H. (1983) Integration of home and nonhome roles: Women's coping and conflic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 43-48.
 - 12) Bird, G.W.(1988)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on dual-career families. Unpublished manuscript. In M.G. Guelzow (1989) Explanatory model of stress and coping process for dual-career men and women.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13) Bird, G.W. & Ford, R. (1985) Sources of role strain among dual-career coup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 187-194.
 - 14) Crossman, D.K. (1984) Dual-career mothers and multiple role satisfaction: Self-esteem, mastery of environment and commit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15) Dytell, R.S. & Schwartzberg, N.S. (1986) Work and family stress and strain outcomes among male and female teachers. Paper presented at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New York.
 - 16) Elman, M.R. & Gilbert, L.A. (1984) Coping strategies for role conflict in married professional women with children. *Family Relations*, 33, 317-327.
 - 17) Ensel, W.M. (1986) Measuring depression: The CES-D scale. In N. Lin, A. Dean & W.M. Ensel (eds.)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Orlando: Academic Press, Inc.
 - 18) Epstein, C.F. (1983) Natural healing processes of the mind: Graded stress inoculation as an inherent coping mechanism. In D. Meichenbaum & M.E. Jaremko (eds.) *Stress reduction and prevention*. New York: Plenum.
 - 19) Ferree, M. (1976) Working class jobs: House work and paid work as sources of satisfaction. *Social Problems*, 23, 431-441.
 - 20) Gore, S. (197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moderat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157-165.
 - 21) Gove, W.R. & Tudor, J. (1973) Adult sex roles an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812-835.
 - 22) Greenhaus, J.H. (1988) The intersection of work and family roles: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organizational issues. In E. Goldsmith (ed.)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 23-44.
 - 23) Guelzow, M.G. (1989) Explanatory model of stress and coping process for dual-career men and women.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24) Hall, D.T. (1972) A model of coping with role conflict: The role behavior of college educated wome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 471-486.
 - 25) Haw, M.A. (1982) Women, work and stress: A review and agenda for the futu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32-144.
 - 26) Heckman, N.A., Bryson, R. & Bryson, J. (1977) Problems of professional couples: A context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323-330.
 - 27) Hertz, R. (1986) More equal than others: Women and men in dual-career marriages.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28) Kessler, R.C. & McCrae, J.A. (1981) Tren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and psychological distress: 1957-1976.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443-452.
 - 29) Kline, M. & Cowan, P.A. (1988) Rethinking the connections among work and family and well-being. In E. Goldsmith (ed.)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 61-90.
- 30) Laster, J.F. (1981)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73, 17-19.
 - 31) Lazarus, R.S. (1984) Patterns and adjustment and human effectnes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32) Marks, S.R. (1977) Multiple roles and role strain: Some notes on human energy, time and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921-936.
 - 33) McCubbin, H., Joy, C., Cauble, A., Comeau, J., Patterson, J. & Needle, R. (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55-871.
 - 34) McCubbin, H.I. & Patterson, J.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H.I. McCubbin, M.B. Sussman & J.M. Patterson (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Haworth Press.
 - 35)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on, A., Muxen, M. & Wilson, M. (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36) Pearlin, L.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37) Pistrang, N. (1984) Women's work involvement and experience of new mother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433-436.
 - 38) Pleck, J.H. (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 417-427.
 - 39) _____ (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CA: Sage.
 - 40) Poloma, M.M. (1972) Role conflict and the married professional woman. In C. Safilios-Rothschild (ed.) *Toward a Sociology of Women*. Lexington, MA: Xerox.
 - 41) Poloma, M.M., Pendleton, B.R. & Garland, T.N. (1982) Reconsidering the dual-career marriage. In J. Aldous(ed.) *Two paychecks, life in dual-earner families*. Beverly Hills, CA: Sage.
 - 42) Quick, J.C. & Quick, J.D. (1984) *Organizational stress and perspective management*. McGraw-Hill.
 - 43) Rapoport, R.N. & Rapoport, R. (1978) Dual-career families: progress and prospects. *Marriage and Family Review*, 1, 1-12.
 - 44) Ross, C.E., Mirowsky, J. & Huber, J. (1983) Dividing work, sharing work, and in-between: Marriage patter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809-823.
 - 45) Schwartzberg, N.S. & Dytell, R.S. (1988) Family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In E. Goldsmith (ed.)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 175-190.
 - 46) Sekaran, U. (1983) How husbands and wives in dual-career families perceive their family and work world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288-302.
 - 47) Sieber, S.D. (1974) Toward a theory of role accumu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567-578.
 - 48) Skinner, D. (1983) *Dual-employed families: coping & adapt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49) Skinner, D. & McCubbin, H.I. (1981) *Dual Employed Coping Scales(DECS)*. In H.I. McCubbin & J.M. Patterson (1982) *Systematic assessment of family stress, resources & coping: Tools for research, education and clinical intervention*. Family Stress and Coping Project. University of Minnesota.
 - 50) Stewart, A.J. & Salt, P. (1981) Life stress, lifestyles, depression and ill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1063-1069.
 - 51) Theodore, A. (ed.) (1971) *The professional*

- women: Trends and prospects. Cambridge: Shenkman Publishing Company.
- 52) Thoits, P.A.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74-187.
- 53) Voydanoff, P. (1987) *Work and family life*. Newbury Park: Sage.
- 54) Yohalem, A. (1979) *The careers of professional women*. Montclair, NJ: Allanheld Osmun.